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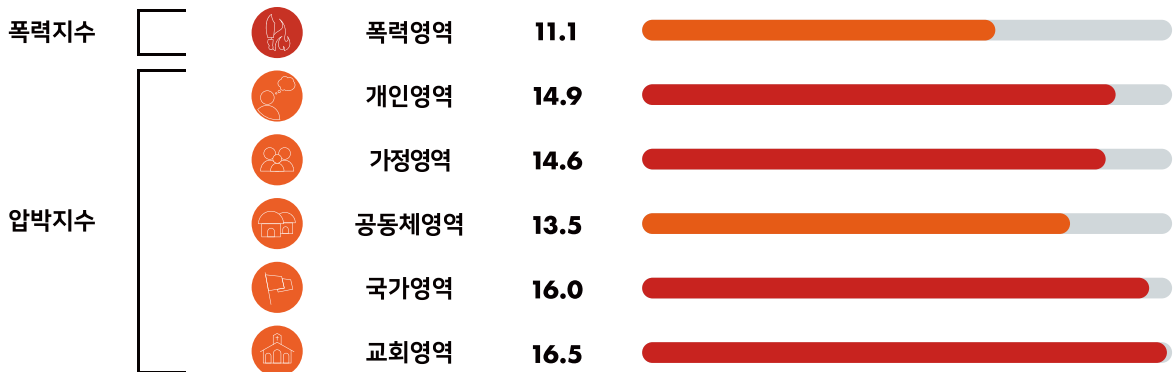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이란 (IRAN)

기독교 박해지수
10 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이란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정부는 물론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매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를 겪고 있다. 정권은 이러한 개종을 이슬람 공화국을 약화시키려는 서방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개종자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기독교인들은 체포, 기소, 장기형 선고에 직면하며, 대개 “국가안보” 위 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러한 탄압은 2025년 6월 이스라엘-이란 전쟁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당국이 개종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도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Article 18, 2025년 8월 25일). 전쟁 직후의 즉각적인 대대적 단속 과정에서 최소 50명의 기독교인이 구금되었다. 의회 또한 광범위한 정의 아래 사형을 도입 하는 새로운 간첩법을 서둘러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는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포괄 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한편, 2024년에 유출된 사법부 문건을 통해 2008년부터 2023년 사이 테헤란에서만 3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기소되었음이 드러났으며,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체 계적인 축소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공인된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공동체는 고용, 언어 사용,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개종자들과의 접촉에 대한 제한 등 법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계속 겪고 있다.

이란 (IRAN)

국가 정보

지도자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인구 : 90,411,000명
기독교인 수 : 800,000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시아파 이슬람
정부형태 : 신정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800,000	0.9
무슬림	88,818,000	98.2
불가지론/무신론	361,300	0.4
기타	432,000	0.5
	합계	100%

출처¹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기독교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서구의 영향을 금지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원칙주의 성향의 보수파로서 최종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며, 입법과 정치 후보자를 심사하는 헌법수호위원회를 임명한다.

이 정권은 역사 전반에 걸쳐 폭력적 탄압의 양상을 보여 왔으며, 그 시작은 수천 명의 정치범이 처형된 1988년의 사건이었다(HRW, 2022년 6월 8일). 시위는 점점 더 큰 규모로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도 1999년 학생 시위에서 2009년 녹색운동에 이르기까지 더욱 거세졌으며, 약 1,500명이 사망한 2019년의 “피의 11월” 시위에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2022년 9월에는 22세의 마흐사 아미니가 풍기단속 경찰에 구금되어 있던 중 사망한 이후 전국적인 “여성, 삶, 자유” 시위가 일어났다. 정권은 최소 550명의 시위 참가자를 살해하고, 수천 명을 체포해 고문했으며, 10명을 처형하는 등 가혹하게 대응했다. 그 이후 당국은 여성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박해와 의무적 베일 착용법 집행을 더욱 강화했다(국제앰네스티, 2025년 3월 17일).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4년에는 최소 975명이 처형되었으며, “이란의 소수민족들은 사형 통계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Iran Human Rights, 2025년 2월 20일). 1990년에는 개종자 호세인 수드만드 목사가 정권에 의해 처형되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맞물려 이후 추가적인 법적 처형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여러 개종자 지도자들은 1990년대 동안 사법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권은 핵 역량을 추구하는 한편 중동 전역의 대리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 및 핵 분야 고위 인사 여러 명과 약 600명의 이란 시민이 사망했다.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 또한 세 곳의 핵 시설을 폭격했다. 또 다른 중대한 전개는 2024년 12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란은 주요 역내

¹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동맹 하나를 잃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이지만, 독립적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여기는 이란인은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GAMAAN 2023). 이란 헌법은 네 종교 집단, 즉 무슬림, 조로아스터교도, 유대인, 기독교인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비()시아파 집단은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 집단은 심각한 침해를 겪고 있다.

수천 명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작은 가정 모임에서 비밀리에 모이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보안 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수천 명이 체포, 심리적 고문(독방 수감을 포함), 그리고 장기 투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년 이란을 떠나고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정부의 감시는 도시 중심부에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 지역은 직접적인 감시가 비교적 덜하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 정부의 존재감은 더 강하지만, 도시의 기독교인들은 더 큰 익명성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감시를 덜 받으며 모임을 조직할 수 있다. 반대로 농촌의 기독교인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당국에 신고할 수도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강한 사회적 감시에 직면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아시아와 서방 출신의 외국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가톨릭, 루터교, 장로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많으며, 이들은 제한과 감시에 직면한다. 이란인 개종자들과의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개종자들이 출석한 이후 폐쇄된 교회들도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는 없다. 헌법상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 권리, 상속법, 고용 기회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

이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는 당국으로부터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그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도 박해를 받는다. 개종자들은 지속적인 감시 아래 작은 가정교회에 모인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구성원들 역시 “국가안보 범죄” 혐의로 기소와 장기 징역형에 직면하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 교회, 침례교, 오순절 교회는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전도나 가정교회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이란의 법체계는 모든 입법이 샤리아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임명하고 시아파 학자들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헌법 수호위원회는 모든 입법을 심사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한다. 페르시아계 주민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슬람법상 배교자가 된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사실상 모든 기독교 활동, 특히 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불법이 된다. 지역 성직자들이 때때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도 하지만, 이란 사회는 온건한 수피 이슬람의 영향과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도부만큼 강한 종교적 광신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가정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주 압력을 가한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이 정권은 정당성의 기반을 이루는 1979년 혁명의 가치를 강하게 수호한다. 기독교는 이란의 이슬람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서구의 영향으로 인식되며, 이것이 개종자들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이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가 권력 유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투옥된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을 겨냥한 조직적인 금전 착취 양상이 존재한다. 당국은 정기적으로 보석 석방을 제안하면서 2,000달러에서 150,000달러 사이의 금액을 요구하고, 가족들이 부동산 권리증서를 내놓도록 강요한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은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종종 자기검열을 하게 되며, 동시에 당국은 그들에게 이란을 떠나고 보석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씨족적 억압

특히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이란의 명예-수치 문화는 박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란의 다문화 사회 안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자주 집단 정체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며, 가족과 지역사회에 수치를 안기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기독교 교단 보호주의

이란 당국은 언론과 국제 무대에서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대표들을 내세워 종교적 관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동시에 이 대표들은 기독교 인구의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자유”에 관해 발언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이란 여성들은 의무적 히잡 착용법 아래에서 심각한 억압을 겪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법은 감시 카메라와 태형, 투옥, 일자리나 교육 기회의 박탈과 같은 처벌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기독교인 여성들, 특히 개종 여성들은 매우 취약하다. 많은 이들이 가정교회에 참여하지만, 체포될 위험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성희롱과 언어적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이들은 무슬림과의 결혼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다. 결혼생활 안에서도 이들은 성적 학대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해 도망치거나 피난처를 찾는 일은 극히 어렵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자녀 양육권 박탈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결혼
- 정부에 의한 투옥
- 여행 금지 및 이동 제한
- 폭력 - 성적

남성

이란의 기독교인 남성들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수년간 투옥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종종 전화 통화, 운동, 적법 절차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교육 현장에서 축출되기도 하며, 그 결과 가족 전체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가장으로서 투옥이나 실업은 깊은 부담을 초래하며, 때로는 이혼이나 자녀들의 트라우마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종자들은 감시, 위협, 괴롭힘을 견뎌야 하며, 많은 이들이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가족을 취약하고 분열된 상태로 남겨둔 채 나라를 떠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나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심리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10	87
2025	9	86
2024	9	86
2023	8	86
2022	9	85

이란의 전체 점수는 보고된 폭력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1점 상승했다. 삶의 영역 가운데 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압박은 여전히 극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 점수 또한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이후 정부는 이제 이들을 공개적으로 간첩이자 협력자로 낙인찍고 있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의 역사적 공동체는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만, 이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 국가의 감시는 증가하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2월:** 당국은 성탄절 기간 동안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급습을 벌여 최소 40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했다. 많은 이들이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었고, 당국은 휴대전화, 컴퓨터, 종교 자료를 압수했다. 여러 구금자는 심문 과정에서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Article 18, 2025년 1월 7일).
- **2025년 3월:** 두 형제는 성탄절 모임 중 체포된 뒤 “국가에 반하는 선전” 및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결과 공모”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문건은 이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페르시아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Article 18, 2025년 3월 31일).
- **2025년 3월:** 세 명의 기독교 개종자가 합산 40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나르 게스 나스리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Article 18, 2025년 3월 10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당한 기독교인의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피해 또는 몰수된 기독교인 사유재산 건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
2026	0	28	35	487
2025	0	17	42	452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은 공개적으로나 온라인에서 신앙을 표현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 당국은 체포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활동을 감시한다. 페르시아어로 기독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전도로 간주되며, 온라인으로 기독교 자료에 접근하거나 외국인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감시를 불러온다. 심지어 성경, 찬송가책, 십자가 목걸이와 같은 종교 물품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조차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바 있다.

가정 영역

가정 영역은 이란의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 준다. 개종자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어 이슬람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의 자녀들조차 의무적으로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한다. 대학 지원서에는 종교를 기재해야 하며, 무슬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 입학이 거부된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아동을 입양할 수 없지만,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공동체는 별도의 고아원을 유지하고 있다. 민법 제881조에 따르면 비무슬림은 무슬림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무슬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기독교인 가족 구성원들은 상속에서 배제된다.

지역사회 영역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에 직면하며, 특히 가정교회 활동이나 전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더욱 그렇다. 많은 이들이 심문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위협을 견뎌야 한다. 이란 정보당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정보원을 활용한다. 국가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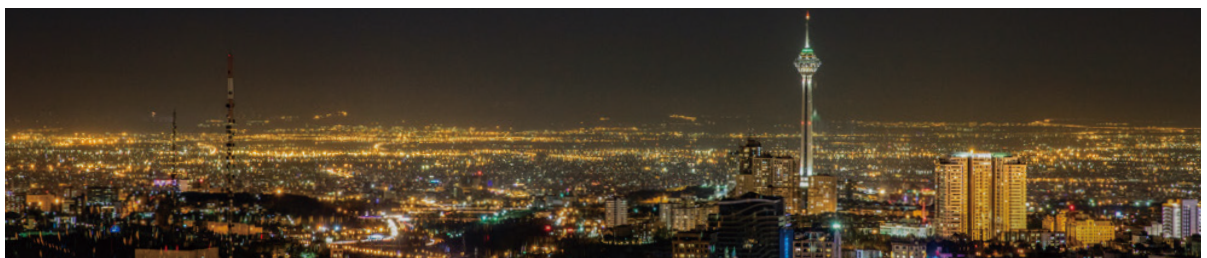
제의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차별이 가능하며, 역사적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사업상 장애에 직면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사업 허가를 거의 받지 못한다. 의무적 히잡 규정은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

국가 영역

모든 고위 공직은 시아파 무슬림에게만 허용되며, 기독교인들은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대표에게 배정된 형식적인 국회의석 세 석을 제외하고는 공직에 나아갈 수 없다. 정부 비판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르며, 국가가 통제하는 언론은 기독교인들을 자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특히 그들을 “시오니즘” 및 “불법” 가정교회와 연관 짓는다. 이는 이란 자체 형법에도 위배되지만, 체포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의 성희롱은 계속 처벌받지 않고 있다. 사법체계는 개종자들을 가족 내 폭력으로부터 일관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 관할 밖에 있는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교회 영역

교회 예배에 대한 경찰의 감시는 참석자들 사이에 만연한 두려움을 낳고 있다.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개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인정한 공동체들은 일부 국가 보조 학교를 운영하지만, 대개 무슬림 교장이 배치된다. 정부는 가정교회를 급습하고 지도자와 구성원들을 체포함으로써 페르시아어권 기독교를 없애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코로나19 제한 조치 이후, 남아 있던 페르시아어 예배 교회 네 곳은 모두 무기한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이란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이란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국가안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며, 공정한 재판 없이 형을 선고받는다 (ICCPR 제9조)
- 평화적인 기독교 종교 활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의 감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방해를 받는다 (ICCPR 제18조 및 제21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을 떠나기로 한 결정 때문에 국가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 (ICCPR 제18조)
- 모든 교단의 기독교인들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 국가의 감시를 받는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이슬람 종교 교육을 강제로 받아야 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고등교육과 공공 부문 고용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다 (ICCPR 제26조)

이란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바하이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재산이 몰수되는 등 조직적인 박해를 겪고 있다. 수니파 무슬림(인구의 10%)은 고용에서 차별을 겪고 예배 장소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수피 데르비시, 야르사니, 조로아스터교도들 역시 괴롭힘과 법적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형 집행이 급증했으며, 특히 쿠르드인, 발루치인, 이란 계 아랍인 등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HRW, 2025년 5월 27일).



오픈도어의 이란 사역

오픈도어는 인접 국가들에서 이란 신자들을 돕기 위해 훈련, 제자훈련, 트라우마 치유,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이란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